

새 제초제, 잡초방제법 소개

현지 연구소 · 농장 견학, 다음학회는 일본서



구 자 옥
전남대학교 농학과 교수

지구의 남반구를 향해 9시간 20분 동안 8,000km 거리를 남으로 남으로 비행해 온 나라, 인구 1700만명, 건조한 기후에 우리나라(남북한) 면적의 35배 정도의 광활한 대륙, 캥거루와 쿠알라의 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Queensland주 Brisbane시에 도착했다. 이곳의 기후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섭씨 14~20도의 온화한 날씨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날씨이고 계절이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Brisbane시의 Sheraton Brisbane Hotel & Towers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APWSS)와 호주잡초학회(CAWSS). 참가국 18개국, 총 466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는 호주 272명, 일본 66명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로 44명이 참석하여 이번 학술회의에서 한국인들의 비중과 역할이 지대함을 보여 주었다(표 1).



Brisbane시 Sheraton Brisbane Hotel & Towers에서의 제 14차 아시아 · 태평양 잡초학회

학술회의의 논문발표는 9월 6일(月)부터 3개 회의장에서 구두발표가, 주위 로비에서 각 원제 회사의 제품전시회 및 Poster 발표가 진행되었다. 구두발표는 129편, Poster는 61편, Video는 2편으로 총 195편이 각각 분야별로 발표되었다(표 2).

구체적인 발표논문으로는 신규제

초제 Metesulam, Flumetsulam, AC322, 140, Cyhalofop butyl(DXE537), DPX-PE350 및 MON 13200등이 각각 소개되었고 병원균, 곤충, 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법, 관수와 경운에 의한 잡초방제법, 수생잡초의 생리 및 생태, 초지 및 임업지에서의 잡초방제, Herbicide Safener, 제초제

표1. 국가별 참가인원 현황

| 순위 | 참가국 | 참가인원 (%) | 순위 | 참가국 | 참가인원 (%) |
|----|-------|----------|-----|--------|-----------|
| 1. | 호주 | 272 (58) | 10. | 인도네시아 | 5 (1.0) |
| 2. | 일본 | 66 (14) | 11. | 싱가포르 | 4 (1.0) |
| 3. | 한국 | 44 (9) | 12. | 대만 | 3 (1.0) |
| 4. | 말레이시아 | 14 (3) | 13. | 파푸아뉴기니 | 3 (1.0) |
| 5. | 태국 | 14 (3) | 14. | 인디아 | 3 (1.0) |
| 6. | 뉴우질랜드 | 12 (3) | 15. | 피지 | 2 (0.4) |
| 7. | 미국 | 9 (2) | 16. | 스위스 | 1 (0.2) |
| 8. | 중국 | 8 (2) | 17. | 영국 | 1 (0.2) |
| 9. | 필리핀 | 5 (1) | 18. | 홍콩 | 1 (0.2) |
| | - | - | 계 | 18 | 446 (100) |

표2. 분야별 논문 발표 현황

| 구 분 | 논문수 | 계 |
|-----------------|-----|-----|
| Plenary Address | 3 | 3 |
| 논문(구두발표) 제초제 분야 | 31 | 129 |
| 잡초학 분야 | 62 | |
| 잡초방제 분야 | 28 | |
| 기 타 | 8 | |
| Poster 발표 | 61 | 61 |
| Video 발표 | 2 | 2 |
| 계 | - | 195 |

표3. 한국인 회원 발표자 및 논문제목

| 발 표 자 | 제 목 |
|--|--|
| -Guh, J.O., S.U.Chon T.D.Park and S.L.Kwon | Differential Growth and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Rice and Barnyard-grass under Various Cropping Patterns |
| -Hwang, I.T., K.Y. Cho and J.C.Choun | Mode of Safening Action of Naphthalic Anhydride Against Injury of Sulfonylurea and Imidazoline Herbicides in Maize |
| -Kim, S.C. | Effective Weed Control Technology for Dry Seeded Rice in Korea |
| -Lee, D.J., K.Usui H.Matsumoto and K. Ishizuka | The Mechanism of Action of Dimepiperate on Several Other Herbicides in Rice Seedlings |
| -Lee, J.J., H.Matsumoto and K.Usui | Mechanism of Selectivity of Diphenyl Ether Herbicide Oxyfluorfen |
| -Park, K.H., Y.C.Ku and Y.J.Oh | Changes of Weed Communities in Low land Rice Fields in Korea |
| -Park, S., K.U.Kim and D.H.Shin | Response and Acetolactate Synthase Activity in Different Rice Cultivars (<i>Oryza Sativa</i> L.) to Cinosulfuron |
| -Pyon, J.Y. and N.E.Balke | Enhancement of Cytochrome P-450 Mediated Aryl Hydroxylation of Bentazon in Rice Microsomes |

저항성, 잡초생리 및 생태학분야의 발표가 있었다. 그중 우리 한국인의 발표건수는 8편이었는데 구두 5편, Poster 3편이 각각 발표되었다(표 3).

9월 6일 월요일에는 학회등록과 함께 APWSS회장인 John Swarbrick와 CAWSS회장인 Marcus Blacklow의 개회 연설과 "Weed management towards tomorrow"란 제목의 K.F.KON의 Plenary연설을 시작으로 논문발표가 각 개회장에서 성황리 이루어졌다. 저녁 6시엔 "Kookaburra Queen"란 배의 선상에서 ICI한국 지사가 마련한 만찬에 초대되어 즐거운 저녁을 함께 하였다.

9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엔 호주 잡초학회가 마련한 학술회의 저녁만찬회가 있었다. 호주 전통음악과 함께 J.Swarbrick APWSS회장과 M.Blacklow CAWSS 회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각 조직위원회 위원 소개가 있었으며 차기 제 15차 APWSS 개최국 일본의 신임학회장인 쓰쿠바대학 Ishizuka교수에게 APWSS 학회기가 전달되었다.

8일은 5개지역으로 나누어 Field Trip이 있었다. 제 1코스는 QDPI Gatton연구소 및 농장과 Gatton 농과대학의 Locker Valley채소재배지를 견학하였고 제 2코스는 Lamington국립공원과 Southport Spit에서 환경 및 초지잡초의 식생을, 제 3코스는 Maroochy연구소와 Sunshine Plantation농업지



Queensland 주 Sunshine Coast hinterland의 Nambour에 있는 Maroochy 원예연구소 아열대 과수 carambola, casimiron, guava 등이 시험·재배되고 있다



北Brisbane 임업지역에서의 잡초방제 전시회

대를 방문하여 열대과일재배지, 임업지 및 수생잡초들을, 제 4코스는 Queensland州 Toowoomba의 미곡농장과 초지를, 그리고 제 5코스는 UQ에서 열대 유해생물 방제 센터와 CSIRO Long-Pocket 연구소, Brisbane 연구소를 각각 방문 견학하였다.

저녁엔 American Cyanamid

社에서 관련 지사 국가 회원들을 Brisbane 교외의 Australian Woolshed農場에 초청하여 Koala, 캥거루농장, 양목장을 둘러본후 바베큐 만찬과 함께 국제적인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양목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양모국가(전세계 양의 1/4, 세계고급양모의 75%)다운 양질의 양모종인 Meri-

no중, Borade Leicester중, Corriedale 중 등이 소개되었으며 양털깎는 사람(SHEARER)에 의해 털을 깎는 시범을 유명한 호주노래 “양털깎기소리(Click Goes the Shears)”에 맞추어 보여주었다.

이어서 9월 9일 긴 발표가 끝난후 국내 농약회사 공동초청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여 모처럼 참가자 전원이 함께한 그야말로 “한국인의 밤”의 시간을 가졌다. Brisbane 시내 차이나타운가 부근의 한국인 교포식당인 “서울식당”에서 우리음식과 술로 이국의 정서를 함께하고 친목과 유대를 더하였으며 교민 십칠년사의 한국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욱 감회가 깊었다.

그리고 10일엔 남은 논문발표가 종료되고 오후 3시30분 본 회의장에서 폐회식과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있었다. 최우수상은 호주회원이 수상하였다. John Swarbrick현 학회장과 차기 학회장인 Ishizuka 교수의 제 15회 APWSS학회때 일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폐회되었다.

학회가 끝나는 Brisbane市 저편 언덕너머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 속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감되는 학회의 아쉬움과, 그리고 남단의 이국땅에서 느끼는 새로운 향취와 감회를 접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 끝으로 함께 온 한국학회 회원들의 협조와 모범된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농의정보